

# 겨울에 만나는 여행지 남원 주목

눈꽃·설경 자연경관·실내·야간 관광 콘텐츠 등 겨울 관광 경쟁력 강화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겨울철 추위 속에서도 오히려 매력을 더하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겨울에도 충분히 찾을 가치가 있는 여행지로 주목 받고 있다.

눈꽃과 설경이 빛내는 자연경관은 물론, 추위를 피해 즐길 수 있는 실내·야간 관광 콘텐츠까지 고루 갖추며 겨울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겨울의 남원은 단순한 비수기 가 아닌, 자연의 고요함과 공간의 깊이가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로 평가받는다. 흰 눈으로 덮인 산과 숲, 차분한 도시 풍경 속에서 여유롭고 밀도 있는 여행이 가능해 겨울 특유의 감성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겨울 자연 명소로는 눈꽃 능선으로 잘 알려진 바래봉과 남원 구간 지리산 설경이며, 겨울철 바래봉과 지리산 지자는 눈꽃이 만들어내는 장관으로 다른 계절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선사하고 겨울을 만날 수 있는 남원'의 이미지를 완성한다.

이와 함께 남원의 겨울 관광은 실외 자연경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빛과 자연, 미디어 콘텐츠가 결합된 관광명소 달빛정원 피오리움은 겨울밤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더욱 감성적인 공간으로 연출되며, 연인과 가족 여행객 모두에게 인상적인 야간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내 문화·전시 콘텐츠 역시 겨울철 남원 관광의 중요한 축이다. 남원 시립김병종미술관은 따뜻하고 쾌적한 실내 공간에서 수준 높은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대표 문화관광지로, 중장년층과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방문객들에게 남원의 품격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실내 전시 콘텐츠도 다양하게 운영, 지리산 허브밸리에서는 2026년 겨울방학 특별기획전 '날개와 향기, 겨울 속 봄을 피우다'를 통해 식물과 향기를 주제로 한 체험형 전시가 마련돼, 한 겨울에도 봄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는 '백두대간 계관오분전 시즌 2'가 열려 백두대간의 생태와 자연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내며, 교육과 관람을 동시에 민족시키는 겨울 실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남원아트센터 지하 1층에서는 전시 '다 지나간다 끝이 아니라 흐름'이 진행, 시유와 여운을 남기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깊이를 더한다.

한편, 윤봉 바래봉 일원에서는 2026년 1월 3일부터 2월 18일까지 눈꽃축제가 개최된다.

이처럼 남원시는 눈꽃과 설경의 자연자원, 실내 전시·체험 공간, 야간 관광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겨울철도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는 복합형 관광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기족 단위 여행객, 연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수요층이 겨울에도 남원을 찾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2025 임실 방문의 해' 918만명 찾아

한국관광공사 집계 결과 918만3132명… 천만관광 임실 가시권

임실군이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지난 12년간 아심 차게 추진해 온 '천만 관광 임실시대'가 지난해 2025 임실 방문의 해' 성과를 계기로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임실군을 찾은 방문객 수는 918만3132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이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8년 498만명에서 무려 84.2%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 7년간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이며, 도내 평균을 크

게 상회하는 수치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지형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다.

임실군 방문객 수는 지난 2022년 809만명으로 첫 8백만명을 돌파한 이후, 지난 2024년 888만명을 거쳐 지난해

임실 방문의 해 추진과 함께 900만명

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다.

이 같은 연간 방문객 수는 인구 수가 비슷한 인근 동부권 5개 자치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됐다.

특히 임실군 자체 통계로도 최근 7년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방문객 수 역대 최고 기록



△도내 증가율 1위 △동부권 유일 900만명 돌파라는 세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동시에 달성, 임실군 관광 역사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데 남다른 의미가 크다.

군은 2025년을 '임실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연간 방문객 1천만명 달성을 목표로 사계절 축제와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집중 육성해왔다. 그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총 918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목표에 근접한 성과를 거뒀다.

/임실=진종영 기자

## 남원시, 스마트·영상 회의로 행정 혁신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디지털 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한 스마트회의와 화상회의 시스템이 구축 거치를 넘어서며 스마트하고 과학적인 행정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다.

남원시는 2022년 12월 재난상황실에 구축된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하여 태풍·집중호우, 산불·구제역 등 재난 위기 상황 시 본청과 23개 읍면동 간

이 한층 강화되어 시민 안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25년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12월에 본청과 23개 읍면동, 관내 전체 406개 경로당을 있는 실시간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과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행정이 더 빨리지고 여가 복지 프로그램 등의 운영으로 스마트 복지 서비스 청구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실시간 영상 소통 체계를 확립하고 현장 상황을 실시간 공유했다. 또한 담당자 스마트폰으로 송출하는 생생한 현장 영상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신속하게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청 지휘부와 일선 현장 읍면동이 실시간 정보 공유·협업하는 원팀이 되어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단축하고 재난 대응력을

## 남원 보질·덕과면서 천연기념물 독수리 폐 목격



남원시 보질면에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독수리 100여 마리가 2년 연속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와 임시로 주변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변화된 제도와 군정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난해 각 마을에서 도출된 총 80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남원시 보질면에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독수리 100여 마리가 2년 연속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와 임시로 주변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변화된 제도와 군정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난해 각 마을에서 도출된 총 80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남원시 보질면에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독수리 100여 마리가 2년 연속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와 임시로 주변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변화된 제도와 군정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난해 각 마을에서 도출된 총 80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남원시 보질면에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독수리 100여 마리가 2년 연속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와 임시로 주변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변화된 제도와 군정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난해 각 마을에서 도출된 총 80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남원시 보질면에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독수리 100여 마리가 2년 연속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와 임시로 주변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변화된 제도와 군정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난해 각 마을에서 도출된 총 80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남원시 보질면에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독수리 100여 마리가 2년 연속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와 임시로 주변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변화된 제도와 군정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난해 각 마을에서 도출된 총 80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남원시 보질면에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독수리 100여 마리가 2년 연속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와 임시로 주변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변화된 제도와 군정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난해 각 마을에서 도출된 총 80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남원시 보질면에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독수리 100여 마리가 2년 연속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와 임시로 주변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변화된 제도와 군정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난해 각 마을에서 도출된 총 80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남원시 보질면에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독수리 100여 마리가 2년 연속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와 임시로 주변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변화된 제도와 군정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난해 각 마을에서 도출된 총 80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남원시 보질면에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독수리 100여 마리가 2년 연속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와 임시로 주변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변화된 제도와 군정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난해 각 마을에서 도출된 총 80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남원시 보질면에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독수리 100여 마리가 2년 연속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와 임시로 주변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변화된 제도와 군정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난해 각 마을에서 도출된 총 80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남원시 보질면에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독수리 100여 마리가 2년 연속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와 임시로 주변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변화된 제도와 군정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난해 각 마을에서 도출된 총 80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남원시 보질면에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독수리 100여 마리가 2년 연속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와 임시로 주변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변화된 제도와 군정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난해 각 마을에서 도출된 총 80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남원시 보질면에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독수리 100여 마리가 2년 연속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와 임시로 주변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변화된 제도와 군정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난해 각 마을에서 도출된 총 80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남원시 보질면에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독수리 100여 마리가 2년 연속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와 임시로 주변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변화된 제도와 군정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난해 각 마을에서 도출된 총 80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남원시 보질면에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독수리 100여 마리가 2년 연속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와 임시로 주변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변화된 제도와 군정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난해 각 마을에서 도출된 총 80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남원시 보질면에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독수리 100여 마리가 2년 연속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와 임시로 주변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변화된 제도와 군정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난해 각 마을에서 도출된 총 80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남원시 보질면에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독수리 100여 마리가 2년 연속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와 임시로 주변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변화된 제도와 군정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난해 각 마을에서 도출된 총 80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남원시 보질면에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독수리 100여 마리가 2년 연속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와 임시로 주변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변화된 제도와 군정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난해 각 마을에서 도출된 총 80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남원시 보질면에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독수리 100여 마리가 2년 연속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와 임시로 주변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변화된 제도와 군정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난해 각 마을에서 도출된 총 80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남원시 보질면에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독수리 100여 마리가 2년 연속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와 임시로 주변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변화된 제도와 군정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난해 각 마을에서 도출된 총 80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남원시 보질면에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독수리 100여 마리가 2년 연속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와 임시로 주변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